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시 야경의 이미지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장 성 희

도시 야경의 이미지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장 성 희

인 준 서

장성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그리는 사람의 표현 욕구는 그 시대의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따라서 그리는 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서적이고 지적인 관심거리가 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간적으로는 '현대'와 공간적으로는 '도시'라는 것이 본인의 삶의 요소로서 필연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문명의 발전은 낮과 밤 모두를 화려한 빛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도시가 산업화 되면서 공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로 고층건물들이 생겨나고 그로인해 야간의 생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명이 자치하는 의미와 역할이 확대되어 간다. 야간조명은 시민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도로, 교량 등의 여러 장소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낮과는 다른 많은 문화적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첫 개인전의 작품을 바탕으로 쓰인 논문으로 야경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의 경관조명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적인 도시의 밤의 이미지와 본인이 생각하고 느낀 야경의 이미지에 관한 것이며, 동양화에서의 밤 풍경의 표현 방법과 본인이 사용한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와 동양화라는 매체에 정체성을 두고 에폭시, 펄 가루, 과슈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이미지와 기계의 눈(사진)을 통해 본 이미지가 서로 융합되었을 때 보여 지는 이중성 이미지에 관한 논문이다. 또한 투명한 재료의 중첩된 표현으로 2차원적인 평면화된 이미지 위에 공간적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조형요소에 대해 논하고, 먹과 한지라는 재료가 가진 장점과 지용성잉크와 펄 가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융합하여 밤의 풍경이 사람에게 주는 감상적이고 독특한 공간표현을 연구한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도시 야경의 의미	3
1. 도시와 경관조명의 역사	3
2. 도시 야경이미지	7
III. 조형 요소와 방법에 의한 연구	10
1. 시점에 의한 표현	10
2. 재료와 표현방법	13
3. 중첩(레이어, 겹쳐짐)의 표현	15
IV. 작품분석	18
V. 결론	38

참 고 사 진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드로잉 1】 사진 드로잉, 1936px x 1296px, 2007	19
【작품 1】 異空間, 420cm x 140cm, 2007	20
【작품 2】 異空間, 59cm x 42cm, 2007	22
【작품 2 부분도】	23
【작품 3】 異空間, 59cm x 42cm, 2007	24
【작품 3 부분도】	25
【작품 4】 異空間, 59cm x 42cm, 2007	26
【작품 5】 異空間, 1190cm x 130cm, 2007	28
【작품 5 부분도】	29
【작품 6】 異空間, 420cm x 70cm, 2007	30
【작품 6 부분도】	31
【작품 7】 異空間, 117cm x 91cm, 2007	34
【작품 8】 異空間, 117cm x 91cm, 2007	35
【작품 9】 異空間, 162cm x 130cm, 2007	36

참고사진 목차

【사진 1】 도시의 밤거리

【사진 2】 서울타워 야경

I. 서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일상적으로 흔히 보는 것, 자신의 생활의 일부나 나와 익숙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한다. 익숙하고 사소한 것에서 작품의 주제가 결정되어 지고 작업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작품은 조금씩 변화 하게 된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 본다는 것은 현재 보이는 현상과 함께 여러 가지 눈으로 보았던 기억속의 이미지를 하나의 공간 안에 담아 즐기거나 감상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야경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 야경은 최근 도시의 야간경관개선 사업종합계획으로 인해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야경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퇴근길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과 교량, 늦은 시간 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는 교실 창문 밖의 주택가, 도시의 변화가에서 반짝이는 네온사인이나 큰 빌딩에서 새어나오는 전등 빛 등 주변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포함한다. 야경의 반짝이는 빛을 내려다보며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빛들이 눈의 잔상으로 남아 겹쳐져 보이기도 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작품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이를 비어있는 공간인 화폭에 담아 표현한다. 표현 방법 중의 하나로 컴퓨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포토샵이나 사진의 다중노출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드로잉작업을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현상의 야경들을 평면인 회화작품으로 구체화한다.

나와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풍경인 야경이라고 하는 모티브에서 느낀 감각의 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야경이라는 것이 주는 굉장히 깊은

어두움과 축축한 듯 한 까만 느낌과 빛이 반짝이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
해야 하는지 내가 보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평면의 공간에서 어떻게 재
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동양
화라는 매체를 통해 평면의 공간 안에서 얼마만큼 표현될 수 있는지, 야
경이라는 익숙한 소재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해 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첫 장에는 도시의 발달과 야간경관조명의 의미, 일반적인 도
시의 야경의 이미지에 대한 내용과 본인의 작품 안에서의 야경의 이미지
에 대해 쓰고, 두 번째 장에서는 야경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조형요소와 시점, 본인의 작품안의 야경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용
된 재료 관해 논하기로 한다.

II. 도시 야경의 의미

1. 도시와 경관조명의 역사

도시는 그 시대의 문화, 제도, 경제력과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시대의 종합 예술체로 인간이 창조하고 유산으로 남긴 유형, 무형의 문화재와 기술축적 등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대 도시는 신전이나 궁전을 중심으로 하여 장엄함이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목적이었다.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침략으로부터 방위를 주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따라서 성곽, 성문, 탑 등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렇듯 인류가 처음 도시를 만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현재의 메트로폴리탄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변화해왔다.

도시가 산업화 되면서 공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로 최초의 마천루가 1895년 뉴욕에 지어졌고 다른 건물들도 뒤이어 지어졌다. 미국의 거대 도시에서 솟구치는 고층 건물들은 도시의 철제 콘크리트 외관을 하늘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물질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건물들은 드높은 첨탑을 가진 유럽의 성당들, 이슬람의 우아한 모스크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황궁들에 대한 상업도시의 화답이다. 그러나 과도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는 점차 우중충하고 뻑뻑하여 혼비백산할 정도로 불품없어지게 되었다. 그로인해 솟구치는 교외의 물결과 궁핍해지는 대다수 시민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증오를 동시에 직면한 핵심 도시들은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 탁월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점점 더 많이 느끼면서 보존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가 남긴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들을 쓸어버리고 더욱 철저하게 현대적인 무엇인가로 그 자

리를 대체하면 오래된 도심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르 꼬르뷔제(Charles-Edouard Jeanneret)¹⁾는 이전 시대의 도시들의 장식품들을 낭비적으로 반현대적이라며 혐오했다. 그는 뉴욕의 유서 깊은 브라운스톤, 다운타운의 비좁은 거리, 절충적인 건축 스타일에서 크램린의 양과 모양 침탑보다 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를 흥분 시킨 것은 맨해튼의 교량들과 고층빌딩들이 시사 하는 가능성이었다. 그는 맨해튼을 “황혼이 내리면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불타오르는 듯 보이는 곳” 이라고 썼다. 그의 비전에서 뉴욕은 심지어 하늘 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했다. 르 꼬르뷔제는 맑고 투명한 유리 마천루가 나뭇잎들 한복판에서 크리스털처럼 솟아오를 도시를 보았다. 그가 이상화한 뉴욕은 새 시대의 조짐 아래에 있는 환상적인 거의 신비로운 수직 도시였다. 그의 사상의 일부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급성장하는 도시들 (브라질,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도시들 에서도 그랬다.

수직도시, 고층빌딩화 되고 야간의 생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빛(조명)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이 확장 되어 갔다. 건축물의 조명이 내부 뿐 아니라 외부 도시공간과도 관련성을 가진다. 예로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나 은행 등에서 1층 로비의 조명은 외부 야간조명의 일환으로 밤늦도록 켜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범죄예방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어 안전을 위해 도로조명을 밝게 한다. 또한 도시 조명은 관광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도시적 측면에서 경관조명계획을 활발히 하였다.

파리는 1989년 시내의 중요 고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비춤으로써 '빛나는 밤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 세느강변을 따라 들어

1)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 스위스의 건축가. 스위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건축가고 본명은 샤를르 에두아르 잔느레(Charles-Edouard Jeanneret)이고, 현대 건축의 최고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자신의 건축 사상을 정립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선 건축물과 각종 교량을 비롯하여 에펠탑, 노트르담 사원, 오르세 미술관, 개선문, 부르봉 궁전, 시청사, 오레라좌, 상제리제 거리등 약 120개소에 1만여 대의 투광기를 설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적극 제고 시키고 있다²⁾.

이러한 건축물과 거리의 조명들이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 공적목적으로 조명이 사용된 것은, 전기가 처음 도입된 1885년 미국 에디슨 상회에서 사들인 자가 발전기 2대가 경복궁 향원정 근처에 설치되어 100축의 서치라이트 2대가 점등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 후 1900년 4월 10일에는 처음으로 종로 네거리에 최초의 전기 가로등 3개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초기의 가로등은 백열전구에 반사갓형 등기구를 씌워 것이었으며, 1961년부터 형광등으로 바뀌게 된다, 1970년에는 수은등, 1980년대에는 메탈 등으로 교체되었으며 최근에는 나트륨등으로 바뀌고 있다.

도시조명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82년 통행금지가 해제된 일이며 이때부터 야간조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거리를 밝히고 도둑을 예방하는 도시조명의 기능이 이제는 상업 활동과 정보 전달수단 그리고 도시경관을 위해 활용되는 역할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야간경관개선 사업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2000년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적인 방식으로 도시의 야간경관을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뿐 아닌 광주나 과천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경관조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역에 맞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고 있는 현황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아셈총회, 월드컵 경기대회,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의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국제적 도시로서의 야간경관의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 어두운 서울의 야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 조엘 코트킨, 『도시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5), p.p. 179~241

공공시설물과 문화재에 시범설치와 민간건축물에 협조공문을 통한 경관 조명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문화재, 한강교량, 공공 시설물, 민간건축물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조사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곳과 조사 시기 이후에 설치된 곳 등을 종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곳에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 도시의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있다.³⁾

본인 작품의 모티브는 서울 도시의 야경의 불빛이다. 어두운 밤 도시의 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강렬하고도 화려한 불빛과, 교량, 도로의 가로등에서 보이는 주황색의 불빛들은 본인의 작품에서 무수한 선들의 겹침과, 비워둠의 표현을 통해 나타낸다.

3) 이혜은, "도시의 경관연출 조명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14~17

2. 도시 야경이미지

수천 년 인류사에서 전통적으로 낮이 태양의 신 아폴로가 지배하는 활동과 질서의 시간이었다면, 밤이란 휘청거리는 향락과 나른한 휴식 그리고 달콤한 퇴폐가 스며있는 디오니소스의 시간 이었다.

낮 동안 도시는 차갑고 복잡하고 냉정하며 덥고 습한 이미지다. 언제나 한여름의 녹을 듯 한 아스팔트처럼 열기를 갖고 있지만, 차갑고 회색의 느낌을 갖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들은 빛을 받아 빛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보는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도시 전체의 너저분하고 자질구레한 의미 없는 것들 까지 밝은 태양 빛에 의해 드러나 보인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가로등과 빌딩 창문과 자동차에 불이 켜지면서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접어든다. 이때부터 뭔가 말하고 움직이고 시선과 정신을 집중케 하는 또 다른 현실의 시간이 무대에서 시작된다. 노출된 것들은 어둠으로 감싸지고 오색찬란한 네온사인만이 가득하다. 밤에 여러 색감의 인공광원들과 조명장식으로 인해 도시는 새롭게 포장된다.<도시의 밤거리, 도판 1> 더 화려하고 경쾌하며 덜 삭막하고 밤은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해방된 자유 시간,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속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밤은 속박에서 해방된 정신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하여 많은 문학과 예술, 철학이 태어날 수 있게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울의 밤을 관조하자면 한 폭 풍경화가 된다.<서울타워 야경, 도판 2> 서울 밤의 산과 강을 찾는 이들에게도 서울의 밤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림 이다. 밤의 도시는 큼직큼직한 구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질

구례한 것들은 모두 감춰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크게 드러난다. 시가지는 더 짙어진 산을 배경으로 보석처럼 빛나기도 하고, 전선처럼 뻗어나가기도 하고, 반딧불처럼 모여 불덩이가 되기도 한다. 밤의 시가지는 이렇게 검은 여백의 도시가 된다. 도시는 어둠 속에서 길을 감추는 대신 그 내부는 밝게 드러내는 한눈에 그 구조가 드러나 보이게 된다.

도시의 야경은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때로는 주변의 칙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몇 안 되는 빛이기도 하고,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비추고 있는 듯 한 무수한 빛의 직접이기도 하며, 그리고 드물게는 찬란한 신기루처럼 강렬하게 빛을 상공으로 내뿜는 도시도 있다.

이렇듯 도시의 이미지는 밤에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른 이미지로 와 닿는다. 높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밤은 아른아른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불빛들은 밝을 때와는 다른 보석을 뿌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의 은하수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진다. 야경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무수한 작은 빛이 촘촘하게 집합함으로써 반짝반짝 빛나는데 있다. 이렇듯 도시의 낮과 밤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공간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본인의 작품 속 도시 야경이 주는 이미지는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도시의 야경이라고 하면 흔히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밤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둡고 음지의 인식이 있어 부정적인데다가 밤의 풍경이라고 하면 뒷골목의 화려한 네온사인과의 퇴폐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밤에 반짝이는 빛 역시 인공의 빛으로 낮 동안의 햇살처럼 따뜻하다거나 따사로워 보이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밤에 있는 빛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 인공적이라는 것은 차갑고 딱딱할 것 같다는 막연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이 보고 느꼈던 밤에 빛나던 빛의 이미지는 따뜻하고 아른

아른하며 간질간질한 느낌, 버스를 타고 불이 다 꺼진 도심의 가운데를 지나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켜져 있는 빌딩의 불빛과 가로등, 지나다니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한강 다리에 켜져 있는 조명들은 인공의 빛이기는 하지만 살아있고 움직이는 듯 한 느낌의 빛이었다. 물론 그것이 밤이 주는 몽환적이고 신기루처럼 아름다운 기분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빛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본인뿐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한번쯤은 느껴 보았을 것이다. 단지 밤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 때문에 아름답다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카이라운지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것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무수히 많은 작은 빛의 점들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황홀하고 반짝이는 빛에 정신을 빼앗겨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듯 보석처럼 반짝이고, 은하수를 보는 것 같은 야경 이미지는 본인의 작업 안에서 투명한 재료의 사용과 중첩된 이미지의 표현, 파노라마효과와 이동시점등의 요소들로 표현되어진다.

Ⅲ. 조형요소와 방법에 의한 연구

1. 시점에 의한 표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고정된 시점에서 특정한 시야 안의 사물을 관찰하고 묘사하지 않음을 설명해준다. 화가에게 투시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투시법은 화가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앉거나, 혹은 일어서서 꼼짝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관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 중에 관찰하게 된다. 즉 그리는 사람은 걸으면서 보고 생각하면서 대상의 각 방향을 관찰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서양회화와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점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서양화는 사생을 중시하고 사생 때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일정한 거리와 각도에서 그 시야 안의 사물을 관찰 하고 묘사한다. 또 비록 상상이나 허구에서 비롯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작가는 언제나 어떤 고정된 시점에서 보이는 사물을 묘사하여 될 수 있는 한 대상의 선, 형태, 빛, 색 등의 객관적인 진실 된 상황을 추구한다. 그래서 화면 안의 명암과 색채의 변화는 반드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객관적인 요소의 제한을 받게 된다.

동양화에서는 앞산을 보고 그 위 에 올라가고 또, 그 산에 올라가 계곡과 강을 내려 보고 훑어보고 걸어본 것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어서 이동시점을 사용함으로써 한 폭의 화면 중에 각기 다른 방향과 시간에서 본 풍경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동양화의 이동시점에 전체적 특징은 동시성과 연속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상에서의 특징이며 또한 그림 속에 4차원의 이상 공간을 설정하려는 동양 산수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현실에 있어 시간과 공간은 연속적 현상으로 체험된다. 동양화에 있어, 이러한 체험은 '걸음걸이마다 새로운 경치가 나타나게' 그럴 수 있고, 또한 '사람을 따라 경치가 변화되게'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⁴⁾ 조형예술 공간과 시간상의 제약을 초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중 시간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이동시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동양화의 이동시점에서처럼 전체적 특징은 동시성과 연속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상에서의 특징이며 또한 그림 속에 4차원의 이상 공간을 설정하려는 동양 산수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현실에 있어 시간과 공간은 연속적 현상으로 체험된다. 조형예술 공간과 시간상의 제약을 초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중 시간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이동시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동양화의 화면 형식 중에는 장권과 긴 횡폭의 특수한 형식의 화면이 있다. 특히 장권인 경우 이는 일종의 연속성을 띤 구도이다. 장권 혹은 횡권이나 수권으로도 불리는데, 높이나 길이에 일정한 규격이 없고 매우 긴 장권은 탁자위에 놓고 말아가며 볼 수 있는 긴 두루마리 그림이다.⁵⁾

이러한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시점 중에 고정된 연속시점인 파노라마(panorama)⁶⁾가 있는데 보통 영화, 사진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시점

4) 진조복, 김상철 역,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언어, 1996) pp.22-24.

5) 왕백민, 강관식 역, 『동양화 구도론』 (미진사, 1991) p.109 p.118

6) 파노라마(panorama): 전체 경치 중에서도 360° 방향의 모든 경치를 담아내는 기법이나 장치, 또는 그렇게 담아 낸 사진이나 그림이다. 현대에는 "파노라마"란 말이 파노라마의 한 종류인 "파노라마 사진 (Panoramic Photograph)"과 거의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기를 사용하여 360° 방향의 모든 경치를 사진 한 장에 담을 수는 없다. 대신 몇 장으로 나누어 촬영을 한 뒤 옆으로 길게 이어 붙여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다. 최근에는 파노라마 전용 카메라가 많이 이용된다. 파노라마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카메라를 제자리에서 돌리며 (Panning) 찍는다.

이다. 파노라마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넓게 펼쳐진 풍경'이라고 적혀있다. 이 말의 의미는 르네상스 이후 생겨난 황금비율에 비하여 가로 혹은 세로의 비율이 넓게 펼쳐진, 열린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파노라마적 지각이란 파노라마로 달리는 철도의 차창을 통해 풍경을 보는 것에서 기원한다. 연속되는 풍경들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채 인접성으로 연결된다. 파노라마와 동양화의 이동시점이 다른 점은 화면을 보고 있는 감상자의 시점에 있어 동양화의 시점이 화면과 함께 합일되어 면면히 살피면서 이동하는 것과 반해 고정된 연속시점은 스크린과 감상자가 대립의 입장으로 하나의 시점에서만 연속적으로 흘러간다는 말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점들은 본인이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동양화의 이동시점, 서양화의 시점, 파노라마와 다중노출의 기법 등 다양한 시점들이 사진과 컴퓨터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본 이미지 소스들은 본 작업에서 재조합하여 야경이 본인에게 주었던 경험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그리는 이가 보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평면의 공간에서 어떻게 재현 할 것인가, 2차원의 공간 안에서 여러 시점과 장면의 이미지를 겹쳐 다른 우연적인 공간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재료와 표현방법

현대의 회화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서로 다른 장르의 미술이 융합되고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 미술은 각 장르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구분되어 졌다면 현대에 와서는 그 경계가 없어져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에는 동양화의 기본 재료인 먹과 한지위에 에폭시, 지용성 잉크, 과슈, 뽀뽀한 털로 된 붓, 펄 가루 등 다른 장르의 재료가 서로 융합되어 표현된다.

야경은 밝은 빛의 조명과 대조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 밤의 어두움 표현 위해 2합장지 위에 먹을 칠하여 나타내는데, 이전의 작업에서는 먹에 물을 섞지 않은 상태로 나무젓가락을 평평하게 깎아 작업하였다. 그러나 밤이라는 어두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조건 검은 것이 아닌 그 안에서 흐리고 짙은 흐름(까만 하늘과 구름일 수도 있고, 야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른 빛의 착시에 의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표현하기위해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나타내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대신할 수 있는 뽀뽀한 털로 된 얇이 각진 붓과 먹의 농담의 단계별로 물과 섞어 흐린 먹색부터 서로 중첩되어지게 붓에 터치를 주어 표현하였다. 또한 빛의 표현에 있어서는 먹을 칠할 때에 비워두는 방법을 택하여 나타낸 뒤 펄 가루를 발라서 전시를 하였을 경우 전시장의 조명 각도에 따라 다른 빛으로 반짝이도록 하였다. 다양한 색이 주는 화려함 보다는 먹색의 모노톤에 한 가지 색 정도를 추가하여 지나가며 보았던 도로 위 야경 이미지의 기억에 대한 빛의 잔상을 나타내 보았다.

이처럼 본 작업들은 야경의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재조합, 야경을 바

라보는 사람의 심적 감정을 통한 것이다.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남은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 야간의 도시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사진을 찍고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 드로잉작업을 하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가 투명하게 겹쳐지는 것이 마치 여러 장면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에 표현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포토샵의 레이어 합성에서 방법을 찾아 이를 동양화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법과 재료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얇은 순지 위에 여러 장의 다른 이미지를 그려서 배접을 하여 뒤의 이미지가 비쳐보이도록 하였는데 반투명하게 보일 뿐 아니라 겹쳐지는 이미지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종이위에 기름을 바르면 종이가 투명한 것처럼 비쳐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순지위에 그려진 그림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재료를 찾다가 공예품에서 에폭시⁷⁾를 사용하여 투명하게 만든 것을 보고 이를 접목하여 사용하였다. 에폭시는 순지위에 그려진 그림위에 스며들어 순지의 물성은 투명하게 되어 없어지듯 보이고, 그려진 그림만 남게 된다. 따라서 투명한 아크릴 박스를 만들어 그림과 그림 사이에 에폭시를 넣고 굳히면 생겨나는 이미지의 층들은 평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이미지들의 사이에서 공간성을 가지게 된다.

7) 에폭시(epoxy):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물과 날씨 변화에 잘 견디고, 빨리 굳으며, 접착력이 강하다. 접착제·강화플라스틱·주형·보호용 코팅 등에 사용한다.

3. 중첩(레이어, 겹치짐)의 표현

중첩기법은 거듭 겹친다는 의미로 미세한 물성의 겹침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중첩은 이미지들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미지들을 통합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중첩형식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수단이다. 겹치고 비치며 누적된 중첩을 통해 시간성과 공간성을 드러내 보이도록 한다. 중첩은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도입하고 대상의 의미를 제거하거나 첨가하면서 다층적 화면을 구성한다. 겹쳐진 부분에서 새로운 또 다른 면이 등장한다. 그 새로운 면과 또 다른 새로운 면이 계속 만나면서 기하급수적인 수치의 면들이 생겨나며, 그 곳에 있는 수많은 필연적인 반복 속에서 우연한 효과로 보이게 되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중첩된 기법은 포토샵의 레이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레이어란 투명한 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층의 개념으로 상위에 있는 레이어는 아래의 레이어를 가려서 안보이게 하거나 반투명, 투명레이어로 하여 다양한 합성된 하나의 이미지 형태를 보여준다.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구성되었을 때 A라는 이미지 바로 위에 B라는 이미지를 놓으면 A라는 이미지는 가려져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투명하게 겹쳐지게 하면 A라는 이미지와 B라는 이미지가 모두 보이며 2차원의 평면의 공간에 3차원의 공간감을 보여줄 수 있다. 중첩에 의한 투명효과로 인해 단순한 이미지는 변화와 운동감을 부여받음으로써 작가의 내적 의도나 우연한 효과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효과적인 기법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진에서 다중노출을 통해 제작된 작품에서도 볼 수 있

다.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합성하여 보이는 다중영상은 단일 이미지보다 효과적인 시각적 인지는 물론 보다 은유적인 표현의 영역을 확장 시킨다. 중첩에 의한 투명성 효과는 움직이는 대상에 의한 초현실적 표현과 더불어 우연성에 의한 새로운 형태가 형성되기도 한다. 중첩에 의한 다양한 형태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다층적 구조는 시간과 공간의 확대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시간적 표현방법이다.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구분하여 보면, 투명성은 불투명성의 상대적 의미로써 그 명확도와 관계없이 후면의 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불투명성은 시각적으로 앞의 것에 의해 뒤의 것이 가려져 그 형태를 알 수 없이 감추어 안 보이게 하는 것이다. 투명성은 공간 확장 기능의 수행과 시각의 조건에 따라 공간이 상호관입 혹은 중첩되는 연속된 공간의 표현과 시각적 정량성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을 동시에 인식하게 함을 뜻하는 것으로 개방성과 더불어 공간 분리와 겹쳐진 후면의 공간을 예측 및 상상하게 한다. 투명한 재료의 반투명, 투명감에 의해 표피의 물성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표피의 변형을 통해 감정이입이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피막으로서의 표피뿐 아니라 다양한 표정을 지니는 공간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투명성의 개념이 시-공간 개념에서 동시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동시성은 대상을 분해하여 모든 측면에서의 시각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다양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동시성에 의한 시지각적 투명성은 내부 구조의 복잡함과 외부 구조의 다양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각의 양면적 특성을 나타낸다. 즉, 투명한 물성을 가진 재료의 물리적인 특성상 반사와 투과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경관을 반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부 공간의 요소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시각의 동시성을 보여주는 표피의 시각적 일체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투명한 재료의 물성 상 얻어지는 복잡함을 형태적으로 절제하여 공간에서 잘 승화시키고, 한편으로 모더니즘의 막연한 단순성에 이러한 투명한 표현요소들이 적용되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은 공간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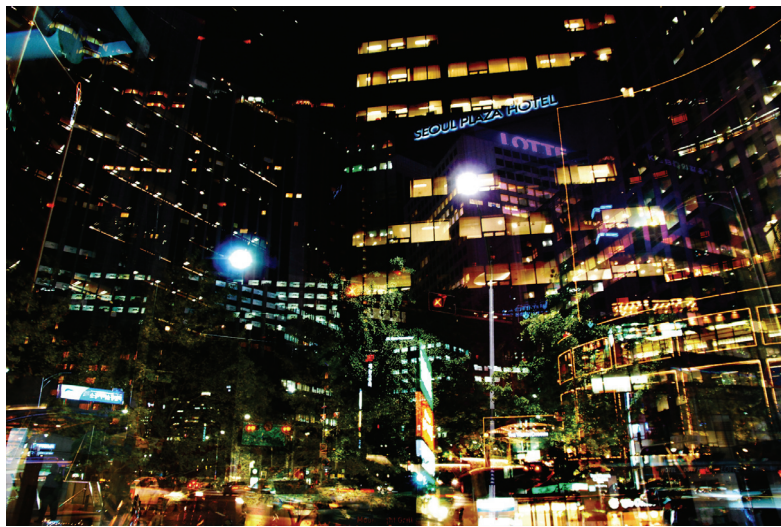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중첩효과를 이용한 것은 어둠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선의 중첩을 통해 경험속의 여러 눈이 보았던 도시의 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다.

IV.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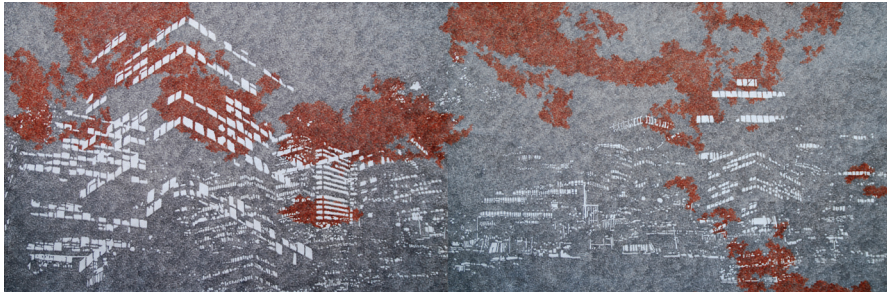
집에 가는 길 버스에 앉아서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면 눈앞으로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나 가로등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잔상, 밤에 거리를 걸으면 건물의 내 외부에서 반짝이는 조명들이 빨리 들어갈 듯 아름답게 보인다.

본 전시의 타이틀인 '異空間'은 다른 공간이라는 뜻으로 밤에만 보이는 새로운 공간으로 낮과 같은 장소에서 밤에만 보이는 신기루 같은 야경의 공간을 뜻한다. 다른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본 작품에는 도시의 거리의 화려한 조명과 빌딩의 내 외부의 조명의 빛의 표현과 높은 곳에서 보여 지는 도시의 야경의 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작업은 사진작업이 우선시 되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 서울의 밤거리를 무수히 걸어 다니고 버스를 타고 조명이 켜진 한강을 건너다니면서 보고 느껴지는 내 속안의 감각을 동양화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사진을 통한 합성작업등을 해보았다.

남산 서울타워, 남한산성, 종로, 명동, 을지로의 거리등을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컴퓨터로 미리 드로잉을 해보고 작업<사진 드로잉 작업, 드로잉1>을 하고 먹과 잉크의 중첩, 여러 장의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도시의 야경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 해보았다.



【드로잉 1】 사진 드로잉, 1936px x 1296px, 2007, Photoshop



【작품 1】 異空間, 420cm x 140cm, 2007, 장지, 먹, 잉크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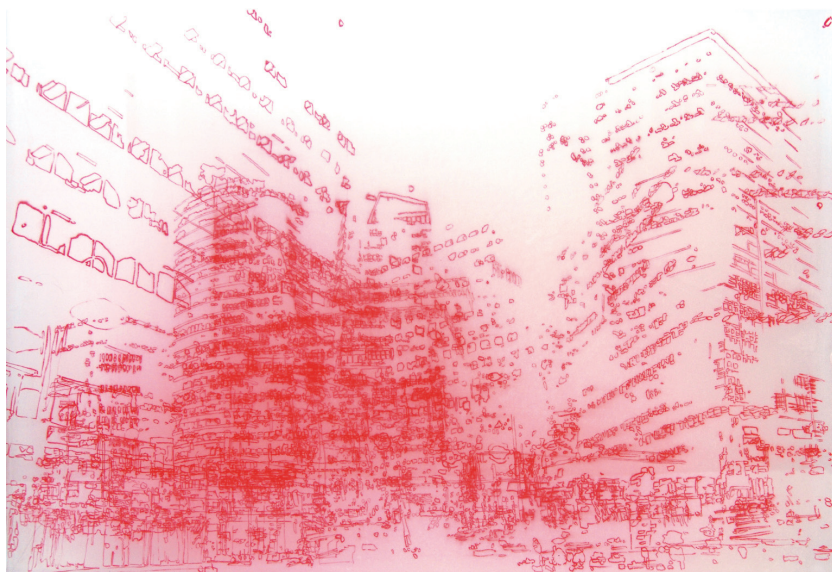
제목: 異空間

재료: 장지, 먹, 잉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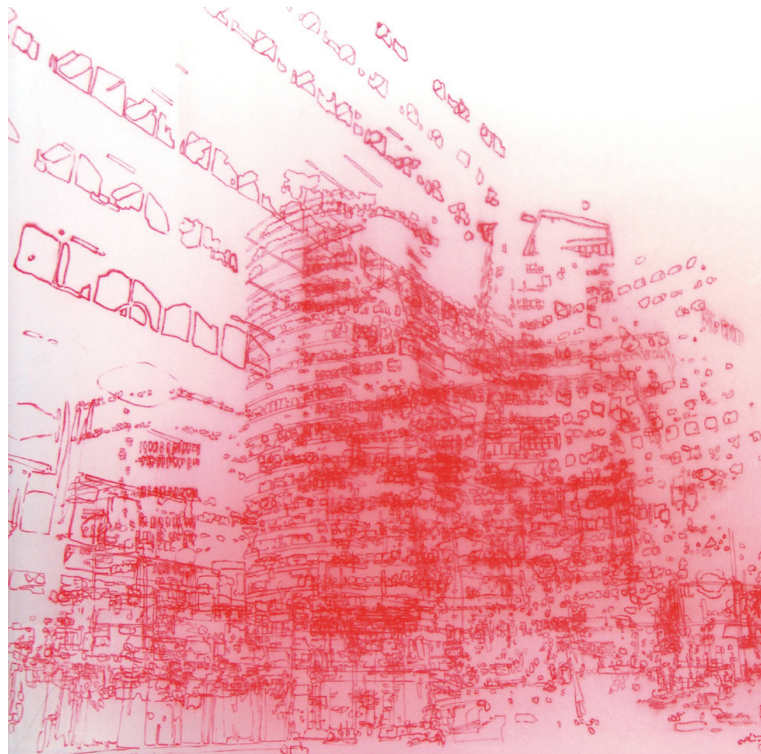
크기: 140cm x 420cm

고층빌딩과 가로등의 빛을 거리를 걷거나 차를 타고 지나가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보면 어느 순간 앞에 보았던 이미지와 지금 보는 이미지가 서로 혼합되어 몽롱하게 보일 때가 있다. 한순간이나마 다른 공간으로 몸이 떠버린 느낌이 들며 여러 빛들이 섞여 보이는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마치 다중 노출한 효과처럼 합성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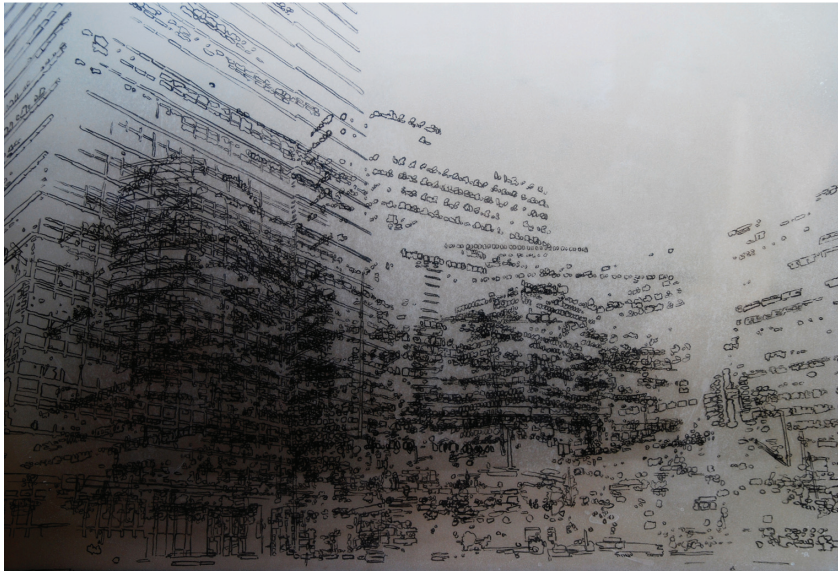
어두운 곳에서 빛이 밝게 빛나는 곳을 들어다 보면 밝은 곳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빛의 표현에 있어서 밝게 색을 칠하거나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사방이 어두운 밤이라면 빛의 부분을 비우는 것이 전체적인 이미지의 답답함을 줄일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작품 1에서는 흔히 보는 도시의 밤거리 이미지 여러 장을 합성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였다. 건물의 창을 통해 보이는 빛, 거리의 가로등의 표현을 비워두고 나머지 부분을 먹과 잉크를 사용해서 밤에 주황빛으로 보이는 빛의 잔상을 표현 하였다. 빛으로 보이는 부분을 비워두고 그 이외의 부분인 밤의 캄캄함에 표현에 밀도나 깊이가 보여야 하므로 먹의 농담을 다르게 하여 여러 번 겹쳐 칠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2】 異空間, 42cm x 59cm, 2007, 에폭시, 순지, 과슈



【작품 2 부분도】



【작품 3】 異空間, 42cm x 59cm, 2007, 에폭시, 순지, 과슈



【작품 3 부분도】



【작품 4】 異空間, 42cm x 59cm, 2007, 에폭시, 순지, 과슈

[작품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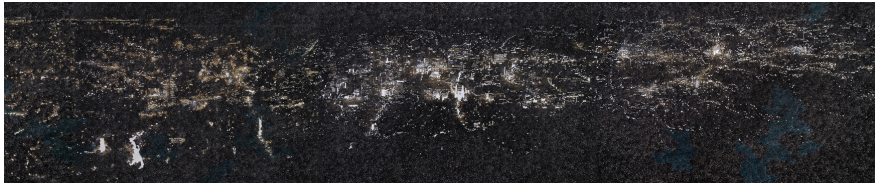
제목: 異空間

재료: 에폭시, 순지, 과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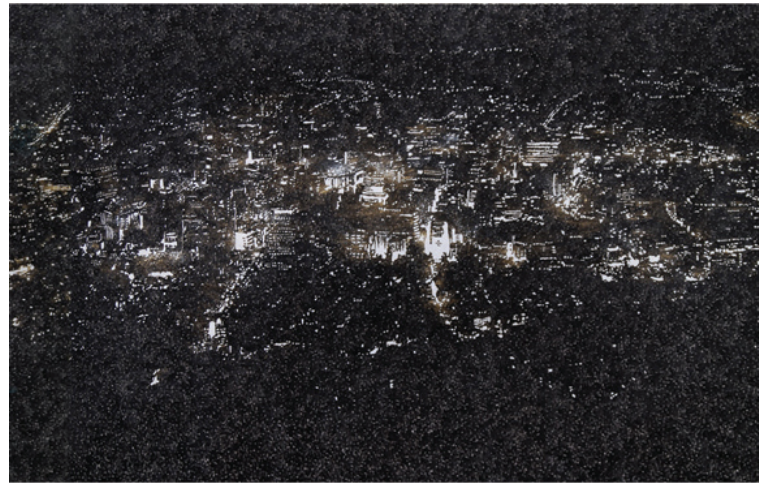
크기: 42cm x 59cm

작품 2, 3, 4는 도심의 야경에서 고층빌딩에서 나오는 빛을 여러 층의 레이어 형식을 빌려 작업한 작품이다. 다층 평면 구조 위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투명하게 보여 지게 하기위해 에폭시를 사용하였다. 에폭시(epoxy)는 히드록시기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접착제이다. 이를 이용해 아크릴 박스위에 순지에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그 사이에 부어 굳히면 하나의 공간이 형성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번 겹치게 되면 비어있는 아크릴 박스 공간 안에 여러 장면의 다른 공간들이 투명하게 겹쳐지면 전혀 다른 공간이 만들어 진다. 이렇게 중첩된 공간에 선으로 그려진 이미지를 보여주면 선의 드로잉들은 서로 겹쳐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명한 드로잉 선들은 층별로 해체된 이미지들을 투명하게 겹쳐 하나의 평면 공간 위에 또 다른 허상을 만들어낸다.

중첩은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도입했고 그래서 같은 화면위에 여러 대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평면에 여러 겹의 평면을 첨가시키면서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상하의 공간은 중첩에서 느낄 수 있는 투명성과 물질성을 보충하면서 화면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선묘를 통해 여러 장면의 야경을 그려 에폭시를 이용해 투명하게 보였을 때 선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우연하게 다른 독특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선이 복잡해지고 투명한 층이 많아질 수록 이미지로 보이는 모습에는 다양한 공간의 모습이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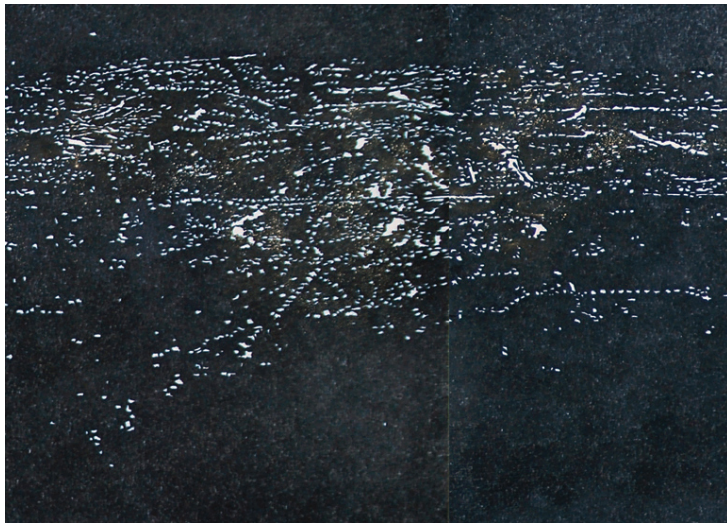
【작품 5】 異空間, 130cm x 1190cm, 2007, 장지, 떡, 펼



【작품 5 부분도】



【작품 6】 異空間, 70cm x 420cm, 2007, 장지, 먹, 필



【작품 6 부분도】

[작품 5, 6]

제목: 異空間

재료: 장지, 먹, 필

크기: 130cm x 1190cm, 70cm x 420cm

작품 5, 6은 남산 서울 타워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야경을 파노라마의 형식을 빌려 표현 하였다. 파노라마란 실제 경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장치이다.

여기서 시점은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며 넓게 펼쳐진 형태이다. 즉, 심원과 평원이 섞여 있고, 서양적 관점에서 파노라마 형식이고 풍경화의 시점에서 보면 조감 투시법이다.

높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아른아른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불빛들이 한 순간에도 갈을 때가 없다. 밝은 낮에 보는 도시와는 다른 따뜻하고 살아 있는 별을 보는 듯 한 이미지로 보여 진다.

칠흑같이 어두운 도시의 밤에 아른아른 살아 움직이는 야경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먹색의 중첩 효과를 사용하였다. 중첩효과를 이용한 것은 어둠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다. 실제 밤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닌 유동성 있는 어두움이다. 구름의 흐름이라 던지 여러 가지 대기의 이유로 한 가지 검은 색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빛이라는 부재적인 효과가 가해져야 하므로 평범하게 덧칠 하여 표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먹은 중첩을 할 경우 색이 위에 겹쳐진다. 처음 칠한 것이 마른 경우 서로 완전히 흡수 되지 않고 두 번째 칠한 것은 위에 얹어 지듯 겹쳐진다. 이러한 먹의 효과를 이용해 여러 농담의 먹색을 만들어 마른 뒤 겹쳐 칠해 밤의 어두움을 표현했다. black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모호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방

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동양화의 재료의 특징이 수용성인 것을 감안 하여 지용성 재료인 잉크를 사용하여 또 다른 중첩효과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성질의 재료를 반복해서 생겨난 우연한 흔적과 얼룩의 축적들이 작품에 표현되고 거기에 기름성분이 있는 잉크를 중간에 사용하여 눈에 남아 있는 빛의 잔상, 혹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표현하고 싶었던 구름, 나무 등의 느낌을 표현 하고, 아롱아롱한 도시의 빛의 표현하기위해 고운 입자의 펄 안료를 사용하여 작품이 전시장에서 조명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른 빛으로 반짝이도록 하였다.



【작품 7】 異空間, 91cm x 117cm, 2007 장지, 먹



【작품 8】 異空間, 91cm x 117cm, 2007, 장지, 먹



【작품 9】 異空間, 130cm x 162cm, 2007, 장지, 먹

[작품 7, 8, 9]

제목: 異空間

재료: 장지, 먹

크기: 91cm x 117cm, 130cm x 162cm

야경의 이미지를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해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우연한 효과로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나 별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 7, 8, 9는 점으로 보이는 도시의 빛을 확대 변형하여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 작업한 것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야경 이미지 사진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자르고 붙이고 확대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도시의 모습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보이도록 작업하였다.

또한 작품8은 밤의 어두움과 빛의 검정색과 흰색이라는 것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닌 중간색의 회색의 느낌으로 하여 회색의 배경에서 은은하게 보이는 빛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V. 결 론

지금까지 도시의 야간조명의 발달 과정과 야경의 이미지 표현 방법에 대한 쓴 본 논문은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야간 조명이 주는 이점과 그로 인한 도시의 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지, 본 작업 안에서는 밤의 빛을 어떠한 이미지로 느끼고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에서 본인의 작업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 그 중에 야경 이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눈으로 보여 지는 장면과 본 것에 의한 기억의 재현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투명한 재료와 중첩된 효과가 보여주는 평면 이미지에서 공간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현대 미술은 점차 장르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서로 융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본 작품은 동양화라는 기본 정체성 안에서 재료적인 면이나 드로잉 적인 부분에서 사진을 통한 레이어 합성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의 영역의 확장을 시도해보았다. 먹과 한지라는 재료 위에 에폭시나 펄 가루 등을 섞어 동양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머릿속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야경의 이미지와 빛의 표현을 찾아본 결과 에폭시의 층 위에 한지라는 재료의 물성을 변화시켜 투명한 공간성을 표현함으로써 여러 이미지가 서로 비쳐지고, 겹쳐지는 독특한 공간표현과 이미지의 깊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모노톤의 먹 위에 펄을 발라 빛을 표현함으로써 전시장에서 조명의 각도에 따라 반짝이는 빛을 다르게 보이게 하여 스카이라운지에서 바라보는 야경의 모습을 전시장으로 옮겨놓은 듯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작업은 그림 속에서 밤풍경의 감성적이고 판타지적인 독특한 감각을 끌어내어 실제 밤풍경으로 근접해 지려 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이미지를 표현해볼 생각이다. 또한 사진과 컴퓨터 등의 매체와 다양한 재료, 표현 방법을 연구하여 야경이라는 소재가 동양화라는 매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와 노력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참 고 사 진



【사진 1】 도시의 밤거리



【사진 2】 서울타워 야경

참 고 문 헌

단행본

- 멘데 카오루, 『조명, 도시를 디자인하다』, 美세움, 2009.
왕백민, 강관식 역,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1.
조엘 코트킨, 『도시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5.
진조복, 김상철 역,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언어, 1996.

학위논문

- 김광석, “한국 도시 풍경에서 나타나는 경관의 시각구조에 대하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수희, “계절이미지 표현을 위한 웹 애니메이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혜은, “도시의 경관연출 조명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주현욱, “동양화의 시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최혜숙, “미술 감상 교육을 위한 동·서양 회화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Study on the image representations of the city at night – Centering around My Work–

Jang, Sung-he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Expressed desire of people to draw environmental and social conditions of that era, in correlation with the changes. Thus, the era of live lice drawn the concern of the emotional and intellectual is often revealed through his work. In this sense, time jeokeuroneun 'modern' and spatially 'urban' is named as an element of my life can not be necessary.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both day and night are making a brilliant light into the world. As the area industrialized city with growing demand for high-rise buildings are springing up overnight Kindly enlarge the living area as the lights go, expanding the meaning and role for government. Night lights are safe for citizens as well as buildings, roads, bridges, etc. Coupled with multiple locations to produce a beautiful city with a big role, and many other cultural natgwaneun are creating a synergistic effect.

In this paper, the first solo exhibition in 2008 on the basis of the

work written on the subject of study through the night lighting of the city describes the typical image of the city at night and at night I think and feel about the image will, in Oriental Creative expression and of the night with my representation of the oriental studies and the media about the identity based on epoxy, pearl powder, by using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gwasyu, to see and to remember the image and the eye of the machine (photo) When the image is fused with each other on the paper, shown is a double image. In addition, a nested representation of a transparent material with two-dimensional image on the flattened representation of the spatial element is used to discuss the design elements, with material benefits and the ink is soluble inks and pearl powder by combining their advantages Enjoy the night scenery and unique space to people of expression will be studied.